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가 더욱 높아졌다”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제공 한울사회서비스사업단



한울사회서비스사업단은 아산재단의 지원을 받아 정신보건 분야 종사자들의 재충전과 휴식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신장애를 연구하는 ‘매드 스터디’ 모임과, ‘철학 스터디’ 참가자들이 2박3일간 제주도에서 여행을 즐기는 모습(왼쪽부터).

조현병이나 조울증, 강박·불안장애 등을 앓는 정신장애인을 상대하는 정신보건 분야 종사자들은 무기력과 소진 정도가 심한 편이다. 정신장애인들의 자살 또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면서 심각한 트라우마에 노출되는 경우가 잦은 탓이다. 사회복지사 등 현장 종사자들은 잠시라도 업무를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복지 업무를 실천할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은 절박감 때문이다.

서울 봉천동에 자리한 한울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아산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6년 7월부터 정신보건 분야 종사자 70여 명의 역량 강화와 소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종사자들의 심리적인 회복을 위해 기획된 사업은 당사자 연구와 동료 커뮤니티, 정신장애에 관한 철학적 이해, 힐링힐링 여행 등 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토론과 스터디·교육은 대부분 사업단에서 진행했고, 여행은 1인당 30만 원의 예산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혼자 혹은 스터디 그룹끼리 떠날 수 있어서 참가자들에게 가장 인기였다. 1차년도엔 여행 장소를 2박3일 제주도로 한정했으나, 2차년도부터 장소와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아서 일부 공부 모임은 개인 경비를 추가해 일본을 다녀오기

도 했다. 사업단의 이정남(39) 사무국장은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다양한 방식의 공부로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여행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 힘을 얻는 드문 기회였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이는 3년째 지원해준 아산재단 덕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사업단은 1997년 몇몇 사회복지사들이 정신장애인을 위해 설립한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의 산하기관으로 장혜경 재단이 사장이 사업단 대표도 겸하고 있다. 재단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부천에서 정신장애인 주간재활시설과 주거제공시설·공동생활가정, 장애인 복지관과 보호작업장 등 13개 기관을 운영 중이다. 사업단은 2011년 발족했으며, 서울·인천·부천의 정신장애인 150명의 가정을 방문해 취업 상담과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원은 13명이며, 2017년 아산재단의 사회복지사업수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단체들이 있습니다. 아산재단은 1977년부터 4,500여 사회복지단체에 500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산재단은 사회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독거노인, 저소득계층의 자녀, 외국인근로자, 노숙인, 미혼모, 폭력피해여성, 새터민, 다문화가족 등 외롭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